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 남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Social Competence : Its Relationship to Parents' Attitudes toward Children's
Expressiveness and Emotion Regulation*

김은경(Eun-Kyung Kim)¹⁾

도현심(Hyun-Sim Doh)²⁾

김민정(Min-Jung Kim)³⁾

박보경(Bo-Kyung Park)⁴⁾

ABSTRACT

The 305 fathers and mothers of 4- to 5-year-old children and their teachers participating in this study responded to three kinds of questionnaires. Findings were that (1) fathers reported greater control of their sons' negative expressiveness; mothers reported greater control of their sons' positive expressiveness. Mothers perceived daughters more likely to regulate their emotions than their sons and teachers perceived girls more likely to be well-adjusted interpersonally than boys. (2) Fathers who reported higher control of their sons' negative expressiveness had sons with higher popularity/leadership; mothers who reported higher control of sons' negative expressiveness had sons with lower interpersonal adjustment. (3) Boys with higher emotion regulation showed higher interpersonal adjustment and popularity/leadership. (4) Mothers' control of boys' negative expressiveness influenced boys' interpersonal adjustment, and boys' emotion regulation and fathers' control of boys' negative expressiveness influenced boys' popularity/leadership.

Key Words :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parents' attitudes toward children's expressiveness), 정서조절 능력(emotion regulation),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

* 이 논문은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¹⁾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사

²⁾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아동학 협동과정 부교수

³⁾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박사과정

⁴⁾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박사과정

Corresponding Author : Hyun-Sim Doh, Department of Psychology,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20-750, Korea
E-mail : simdoh@ewha.ac.kr

I. 서 론

아동은 여러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고 가족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나갈 뿐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게 된다. 나아가 사회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점차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와 같이 아동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친구를 사귀고, 친구들에게서 원하는 정보를 습득하며, 놀이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기술을 배우게 되는데 이러한 기술은 사회적 능력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즉, 사회적 능력이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다른 아동의 행동에 반응하며, 긍정적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부정적 행동 표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아동이 성장하면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원만한 사회생활을 이루며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다.

사회적 능력의 기초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며, 아동은 이를 토대로 사회적으로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유지하게 된다. 즉, 사회적 능력은 기본적으로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되며, 아동의 다양한 사회적 행동양상은 부모로부터 배우게 된다(Maccoby & Martin, 1983). 특히 유아기에 이루어지는 부모와의 경험은 아동의 행동은 물론 그들의 성격이나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후 성년기의 발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Kennedy, 1992). 이러한 의미에서 그동안 수많은 연구자들은 유아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성, 연령, 기질 및 자기 조절력 등 아동의 개인적 요인과 부모의 양육행동과 같은 환경적 요인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주요 변인들로 잘 알려져 있다. 우선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각 변인들의 성차를 살펴본 기존 연구들(강지훈, 2004; 권연희·이종희, 2005; 김순정, 2000; 박화윤·안라리, 2006; 이지선·정옥분, 2001; 이진숙·한지현, 2004; 임희수·박성연, 2001; 한유미·손경화, 2004; Feldman, Brody, & Miller, 1980)에서는 아동의 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능력에 대한 차이가 일관되게 밝혀지지 않았다. 즉,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여아에게는 보다 다양한 감정에 대하여 수용·허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남아에게는 부정적 정서나 긍정적 정서 모두 통제적이거나 처벌적이라는 연구결과들(권연희·이종희, 2005; 김순정, 2000; 이지선·정옥분, 2001; 정진아, 2004)이 대부분이지만,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서 아무런 성차를 발견하지 않은 연구결과들(김문신, 2003; 한유미·손경화, 2004)도 발견된다. 또한, 정서조절 능력에 있어서도,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조절 능력이 뛰어나다는 연구결과들(임희수·박성연, 2001; Feldman et al., 1980)이 있는가 하면, 남아와 여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다르지 않다는 연구결과(강지훈, 2004)도 있어 성차와 관련된 연구결과는 매우 비일관적이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여, 여아의 사회적 능력이 남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즉, 남이는 여아보다 공격성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 수준이 높으며, 여아는 대인관계에서 보다 친사회적이고 반사회적 문제행동을 적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이진숙, 2001). 여아는 또한 남아보다 이타심, 공감, 협력 및 친사회적인 행동과 같은 사회적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이진숙·한지현, 2004; 이태영, 2000). 그러나, 아동의 사회적 능력 역시 몇몇 연구들은 성차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권연희, 1995; 박화윤·안과리, 2006). 이처럼 아동의 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 행동,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능력에 대한 차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본 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아동의 행동을 부모-자녀관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의 연구들(손승희·이은혜, 2004; 이진숙·한지현, 2004; 홍계옥, 2001)은 주로 전반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부모의 양육 반응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부모가 아동의 정서표현에 대해 보이는 태도는 이러한 구체적 상황에 대한 부모의 양육 반응성을 파악할 수 있는 양육행동으로, 최근 들어 이에 관한 관심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아동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자녀가 표현하는 화, 슬픔, 두려움, 불안, 호기심, 행복, 혐오감 등의 감정 또는 정서에 대해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우석, 2004; Kring, Smith, & Neale, 1994). 자녀의 정서표현은 행복과 호기심과 같은 ‘긍정적 정서(Positive Emotion)’와 슬픔, 두려움, 혐오감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Negative Emotion)’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며, 부모는 아동의 이러한 두 가지 정서에 대해 수용적으로 혹은 통제적으로 대하게 된다. 이는 부모의 일방적인 양육행동 요인들과 달리, 자녀가 표현하는 정서에 대해 부모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이에 따라 자녀의 정서표현이 즉각적으로 적절히 바뀌어가게 하는 일종의 양방향적 상호작용을 통한 양육행동에 속한다(Zelman & Shipman, 1996). 간단히 말하면, 자녀의 긍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자녀가 호기심이나 행복 등의 정서를 보이는 경우 부모가 나타내는 반응을 의미하며,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자녀가 화, 슬픔, 두려움, 불

안, 혐오감 등의 정서를 보일 때 부모가 보이는 반응을 의미한다(Berlin & Cassidy, 2003).

부모가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해 즉각적이며, 일관된 행동으로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때 아동은 부모의 모습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어 대인관계에서 보다 명랑하며 긍정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게 되어, 또래관계 내에서 거부되지 않고 잘 적응하게 된다(Pettit, Dodge, & Brown, 1998). 즉, 자신의 정서표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받은 아동은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또래 집단에서 인기가 많으며, 교사나 부모로부터 사회적 능력이 뛰어난 아이로 평가 받았고, 공격적인 행동이 적었다(이현민, 1998; 최혜정, 2003; Cohn, 1990). 반면,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에 일관성이 없으며 지나치게 통제적인 부모의 자녀는 공격적인 성향을 많이 드러내 또래관계에 적응하기 어렵게 되며(Pettit et al., 1998), 정서적인 불안정과 인간에 대한 신념을 상실하게 되고 비합리적인 파괴행동을 일삼는 등 낮은 사회적 능력을 보였다(Baruch & Barnett, 1981). 이를 통해,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제로 한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부모의 일반적인 양육 태도를 유아의 사회적 기술이나 능력과 관련시켜 살펴본 연구들(김현미·도현심, 2004; 손승희·이은혜, 2004; 이진숙·한지현, 2004; 임연진, 2002; 홍계옥, 2001)이 주로 수행되어왔다. 최근 들어,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다룬 몇몇 연구들(김문신, 2003; 이지선·정옥분, 2001; 이현민·조복희, 1998; 임미옥, 2006; 한영민, 2005)이 발견되나, 이들은 주로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이나 정서지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어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자녀의 양육행동에 있어서 발견되는 아버지과 어머니간의 차이(이지선·정옥분, 2001)와 아동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점점 강조됨(김광웅·이인수, 1998)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본 몇 편 안되는 연구들(김순정, 2000; 신현숙, 2005; 허애수, 2003)이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본 연구는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보이는 태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정서는 1980년대 후반 이후로 단순한 감정이라 개인에게 의미가 있는 인간과 내적·외적 환경 사이의 관계를 형성, 유지, 또는 파괴시키는 과정으로(Barrett & Campos, 1987; Frijda, 1986), 인간 유기체의 심리학적, 인지적, 생리적, 경험적 체계를 포함하고 있는 복잡한 현상으로 정의되고 있다(Izard, 1979). 이러한 정서의 개념에 따라 연구자들은 인간의 복잡한 정서를 맥락적이고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즉, 정서를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은 개인의 삶의 적응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정서조절은 하나의 결과이자 동시에 과정으로 개인의 목표를 위해 정서적인 반응을 모니터, 평가, 수정하는 과정으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을 포함한다(Thomson, 1993). 여러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정서조절이란 정서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각성수준을 억제하거나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지속시키거나 강화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Gottman & Katz, 1989; Kopp, 1989). 즉, 정서조절은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이나 갈등에 대하여 개인이 정서적 자극 축진의 정도를 조절하는 대처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은 ‘불안정/

부정적 정서(Lability/Negativity)’와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 등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분된다. 불안정/부정적 정서는 분노 유도적 또는 공격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기분 변화에 따라 정서의 강도를 조절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의미하며, 정서조절은 자신의 마음을 침착하게 조절하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여 감정이입할 수 있는 정서조절 능력을 의미한다(Shields & Cicchetti, 1998).

부모와의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적절한 정서조절 능력을 갖게 되면, 아동은 쾌활하며 자신감 있고 정서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게 되고 공격적 행동 유발 상황에서 혼란을 느끼는 일도 드물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들은 또래 사이에서 인기가 많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게 되며 또래 또는 다른 사회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준이 높아지는 등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게 된다(김옥희, 2003; Hart, Hoffman, Edelstein, & Keller, 1997). 즉, 정서조절 능력의 발달에 기인한 안정적 대인관계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발달을 초래하게 된다. 타인을 배려하고 책임감과 동정심이 강하며 남들과 쉽게 잘 어울리는 것은 바로 아동의 높은 사회적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서조절 능력이 높은 아동들은 또래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스스로 효율적으로 진정시킬 능력이 있으므로, 공격적인 행동이나 문제행동을 표출할 가능성이 낮다(Caspi & Moffitt, 1993). 또래관계에서 문제행동을 거의 표출하지 않는다면 아동은 더욱 친사회적이 될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해결방안을 쉽게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은 Vygotsky의 연구(1978)에서와 같이 인간의 상호작용을 돕고, 이를 통해 아동은 사회에서

요구되는 숙련된 기능과 지식을 보다 기능적으로 획득하며, 또래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새로이 습득된 지식과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많이 얻게 되어 다양한 정보 습득과 함께 사회적 발달이 증진될 것이다(신애경, 2003; Bidell, 1988).

그러나 국내의 경우,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을 사회적 능력과 관련시켜 살펴본 연구는 드문 편이며, 이를 주제로 한 몇몇 연구들(김규수·박승순·권소영, 2003; 심혜숙·왕정희, 2001; 황혜정·김경희, 1999)은 주로 정서조절 능력의 상위개념인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이나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심혜숙·왕정희(2001)의 연구에 의하면, 정서지능의 한 하위요인인 자기조절은 사회적 능력과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만 3-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황혜정·김경희(1999)의 연구에서는 정서지능 중 정서조절 능력으로 볼 수 있는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요인만 사회적 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정서지능의 다른 하위요인들에 비해 유아가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늦게 발달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와 달리, 유아를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들에서는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이나 또래간 유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김규수·박승순·권소영, 2003; 임연진, 2002). 이처럼,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 정서조절 능력과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에 대한 결과가 다소 비일관적으로 나타나기에, 본 연구에서는 양자간의 관계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이 각각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살펴

보는 것에 더해, 이러한 양 변인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다면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을 돕는 주요한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외적 변인에 속하며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은 내적 변인에 속하기에, 이들 변인 중 어떠한 변인이 더 영향력 있는 변인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몇몇 유사한 연구들 가운데 홍계옥(2001)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있어 사교성은 접근·회피성과 같은 아동의 기질이, 비협조성은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나 온정성과 같은 양육행동이 보다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보고한 바 있다. 더구나,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수용태도는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한영민, 2005)과, 부모의 수용, 거부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조절(임연진, 2002)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또한,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의 상위개념인 정서지능 역시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나 배경변인 등과 같은 외적인 요인보다는 아동의 내적인 요인에 의해 보다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이현민·조복희, 1998). 이러한 점에 근거할 때,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간의 상호관련성보다는 양 변인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이 외에도 최근 들어 아동발달 관련 연구들은 여러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가 아동의 성에 따라 다소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몇몇 연구들의 예를 들면,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 태도와 자녀의 부적응 행동 및 친사회적 능력간의 관계(김순정, 2000), 자녀의 정서표현 태도와 정서지능간의 관계(이지선·정옥분, 2001), 그리고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

의 정서성간의 관계(권연희 · 이종희, 2005)에서 이러한 변인들간 관계는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여아보다는 남아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김순정,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양육태도인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이 남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각각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나아가 이러한 양 변인들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능력은 아동의 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1-1.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아동의 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1-2.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은 아동의 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1-3.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아동의 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남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남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은 사회적 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이 남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및 수도권에 위치한 6개의 유치원과 4개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305명(남아 146명, 여아 159명)의 만 4-5세 유아들로서,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롯하여 각 기관에서 아동을 지도하는 담임교사 17명이 참여하였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4-5세 유아기 아동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이유는 또래관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며 사회적 능력의 기초가 확립되는 유아기의 특성(Kennedy, 1992)에 근거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연령은 만 5세가 179명(58.7%), 만 4세가 124명(40.7%)이었다. 아버지의 연령은 36-40세가 124명(40.7%), 31-35세가 69명(22.6%), 41-45세가 60명(19.7%) 순으로, 어머니의 연령은 31-35세가 160명(52.5%)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36-40세가 96명(31.5%)이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163명(53.4%), 전문대 졸업 혹은 대학교 중퇴가 46명(15.1%)으로 과반수가 대학교 졸업의 학력을 소지하였으며, 어머니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141명(46.2%), 고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이 75명(24.6%), 전문대 졸업 혹은 대학교 중퇴가 63명(20.7%) 순으로 과반수가 전문대 졸업 혹은 대학교 중퇴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로 구성되었다.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아버지

와 어머니 각각에 의해,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은 어머니에 의해, 그리고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교사에 의해 평가되었다.

1)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

유아기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양육 반응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Saarni(1989)가 개발한 PACES(Parent Attitude toward Children's Expressiveness Scale)를 번안하되 연구대상자의 연령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내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른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보이며 귀가한다면, 나는?'이라는 문항에서 '학교' 대신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수정하였다. 원래 Saarni(1989)의 PACES는 자녀의 가설적인 정서표현 행동에 대한 부모의 수용-통제 반응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4점 Likert식 척도로서, '화(4문항)', '슬픔(2문항)', '두려움(4문항)', '불안(3문항)', '호기심(3문항)', '행복(3문항)', '혐오감(1문항)' 등의 7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각 요인별 신뢰도가 높지 않아 Berlin과 Cassidy (2003)의 연구를 바탕으로 '자녀의 긍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태도'의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자녀의 긍정적 정서는 '호기심'과 '행복'과 관련된 6문항으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는 '화', '슬픔', '두려움', '불안', '혐오감'과 관련된 14문항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문항은 자녀가 보이는 정서표현 행동에 대한 부모의 일상적인 반응을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1점은 매우 수용·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반면, 4점은 매우 엄격·통제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매우 억압적이고 통제적임을 의미한다.

다. Cronbach's α 에 의해 산출된 신뢰도를 살펴보면, 자녀의 긍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는 .80,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는 .73이었으며, 자녀의 긍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는 .78,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는 .69로 적절한 수준이었다.

2)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는 Shields & Cicchetti(1997)의 정서조절 척도(Emotion Regulation Checklist)를 강지훈(2004)이 수정, 번안한 문항들을 사용하였으며, 그 가운데 척도의 전체 신뢰도를 낮추는 4문항을 제외하고 총 8문항을 본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불안정/부정적 정서(Lability/Negativity)와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의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하위요인별 문항의 예를 들면, 불안정/부정적 정서 요인은 '화가 나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도 쉽게 마음의 평정을 되찾는다', '쉽게 좌절한다', '만족을 지연할 수 있다' 등의 3문항으로 구성되며, 정서조절 요인은 '명랑한 아이이다', '어른들이 말을 걸면 미소, 웃음을 짓는 등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 '또래가 말을 걸면 미소나 웃음을 짓는 등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 등을 포함한 5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러한 경향을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에 의해 산출된 신뢰도는 유아의 불안정/부정적 정서 요인이 .60, 정서조절 능력 요인이 .71로 나타났다.

3) 아동의 사회적 능력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Doh &

Falbo(1999)가 개발한 ‘사회적 능력 척도 : 유치원용(Social Competence Scale for Kindergarteners)’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인적응성(Interpersonal Adjustment), 인기도/지도력(Popularity/Leadership), 사회적 참여(Social Participation) 등 3개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된다. 대인적응성 요인은 ‘친구들과 놀다가 화를 낸다’, ‘친구를 잘 도와준다’, ‘친구들에게 협조적이다’ 등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기도/지도력’ 요인은 ‘여러 아이들 중에서 대표로 뽑힐 때가 많다’, ‘친구들을 잘 이끌어 나간다’ 등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참여 요인은 ‘친구들을 좋아한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 한다’ 등 5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2점, ‘대체로 그런 편이다’는 3점, 그리고 ‘매우 그렇다’는 4점인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17명의 교사들로부터 얻은 응답은 교사들 간의 다른 평가기준으로 인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별로 Z점수로 변환하는 표준화 작업을 거쳐 분석하였으며, Cronbach's α 에 의해 산출된 신뢰도는 요인별로 대인적응성이 .92, 인기도/지도력이 .89, 사회적 참여가 .80으로 적절한 수준이었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2005년 6월 중에 실시하였다. 서울시 및 경기도에 위치한 6개 유치원과 4개 어린이집 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총 17개 학급의 교사들에게 조사방법 및 응답시의 주의점을 전달하였다. 아버지용 및 어머니용 질문지는 대상 유아들을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배부, 회수되었으며, 교사용은 교사

들이 직접 평가하도록 하였다. 배부된 370부의 질문지 가운데 310부가 회수되어 80%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유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쌍으로 분석하기 위해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질문지가 누락된 3부와 교사용 질문지가 누락된 2부를 제외하고 총 305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for Window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도구의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고,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능력에서의 성차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능력의 성차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비롯한,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능력이 아동의 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1>).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의 경우,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와 자녀의 긍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에서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었다. 즉, 아버지들은 딸보다는 아들이 표

현하는 부정적 정서에 대해 보다 더 통제적이었으며, 어머니들은 딸보다 아들이 표현하는 긍정적 정서에 대해 보다 통제적이었다. 그러나 자녀의 긍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는 아동의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중 정서조절 요인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조절을 잘 하였으나, 불안정/부정적 정서 요인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경우, 대인적응력에서만 유의한 성차를 보여,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대인적응성을 가지고 있었다.

참고로,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비교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남아의 경우는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 모두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서, 여아의 경우는 긍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서만 양자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아들의 긍정적 정서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부정적 정서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더 통제적이었으며, 딸의 긍정적 정서에 대해서는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더 통제적이었다.

2.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남녀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남녀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표 2>). 남아의 경우, 아들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

<표 1>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능력의 성차

	남아(n=146)		여아(n=159)		<i>t</i>
	<i>M</i> (<i>SD</i>)	범위	<i>M</i> (<i>SD</i>)	범위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					
자녀의 긍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	18.17(2.05)	13-24	17.88(2.26)	12-25	1.18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	29.93(4.37)	17-41	28.91(4.28)	20-42	2.07*
자녀의 긍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19.33(1.99)	12-24	18.79(2.25)	11-23	2.22*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28.39(3.36)	21-40	28.27(3.64)	18-40	.29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불안정/부정적 정서	17.87(2.30)	9-21	17.66(2.41)	11-24	.75
정서조절	14.70(2.39)	8-20	15.65(2.33)	10-20	-3.52***
아동의 사회적 능력					
대인적응성	-1.14(8.38)	-18.81-15.52	.99(7.03)	-16.71-15.03	-2.39*
인기도/지도력	-.26(6.33)	-15.02-14.46	.36(5.28)	-14.04-14.28	-.92
사회적 참여	-.07(3.51)	-15.79-7.86	.06(3.41)	-18.89-7.22	-.33

p*<.05 **p*<.001

<표 2>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남녀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상관관계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	아동의 사회적 능력					
	대인적응성		인기도/지도력		사회적 참여	
	남아	여아	남아	여아	남아	여아
자녀의 긍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	-.01	-.03	.00	.01	.10	-.07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	-.14	-.07	.16*	.11	.02	-.00
자녀의 긍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01	.04	-.07	.11	-.05	-.07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22**	-.13	-.06	-.05	-.12	-.13

주) 남아 : 146명, 여아 : 159명

* $p < .05$ ** $p < .01$

의 태도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 가운데 인기도/지도력과만 유의한 관계($r = .16, p < .05$)를 나타내어, 아들이 표현하는 부정적 정서에 대해 아버지가 통제적일수록 남아는 높은 인기도/지도력을 나타내었다. 아들의 긍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는 남아의 어떤 사회적 능력 요인들과도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아들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는 남아의 대인적응성과만 유의한 관계($r = -.22, p < .01$)를 나타내어, 아들이 표현하는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통제적일수록 남아는 낮은 대인적응성을 보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들의 긍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는 남아의 사

회적 능력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여아의 경우, 딸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사회적 능력의 어떤 요인 과도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3. 남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남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표 3>). 남아의 경우, 정서조절은 대인적응성 및 인기도/지도력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어, 정서조절을 잘할수록 남아는 높

<표 3> 남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사회적 능력간의 상관관계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아동의 사회적 능력					
	대인적응성		인기도/지도력		사회적 참여	
	남아	여아	남아	여아	남아	여아
불안정/부정적 정서	.11	-.06	.16	.07	.13	-.04
정서조절	.19*	.01	.18*	.08	.14	.09

주) 남아 : 146명, 여아 : 159명

* $p < .05$

<표 4> 아들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남아의 대인적응성 및 인기도/지도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N=146)

독립변인	대인적응성		인기도/지도력	
	B	β	B	β
아들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아버지 태도			.24	.17*
아들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태도	-.56	-.22**		
남아의 정서조절			.47	.18*
R^2	.05		.06	
F	7.58**		4.47*	

* $p < .05$ ** $p < .01$

은 대인적응성($r = .19, p < .05$)과 인기도/지도력($r = .18, p < .05$)을 가지고 있었다. 불안정/부정적 정서는 남아의 사회적 능력의 어떤 하위요인들 과도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여아의 경우,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은 사회적 능력과 어떠한 유의한 관계도 없었다.

4.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이 남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이 남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종속변인인 남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아의 경우, 딸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정서조절 능력 모두 사회적 능력과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아 본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중다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17-.20의 상관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우려되지 않았다.

그 결과, 남아의 대인적응성은 아들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22, p < .01$), 그 설명력은 5%였다. 이는 아들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와 남아의 정서조절을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전자만이 남아의 대인적응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음을 나타낸다. 남아의 인기도/지도력의 경우는, 아동의 정서조절($\beta = .18, p < .05$)과 아들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beta = .17, p < .05$) 순으로 나타나 양 변인이 매우 유사한 정도의 영향력을 보였으며, 그 설명력은 6%였다(<표 4>).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 및 수도권에 위치한 6개의 유치원과 4개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4-5세 아동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교사를 대상으로,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능력이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비롯하여,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이 남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이 남

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능력이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 자녀의 긍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아동의 정서조절 및 대인적응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의 경우, 아버지는 딸보다 아들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더 많이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경우 남아가 보이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더욱 엄격·통제적인 태도를 나타낸 반면, 여아가 보이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서는 더욱 수용·허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이지선·정옥분, 2001)와 일치한다. 한편, 어머니는 딸보다 아들의 긍정적 정서에 대해 더 많이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해 여아보다 남아에게 보다 엄격하고 통제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기존 연구결과(김순정, 2000)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녀가 보이는 정서표현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녀의 성에 따라 다소 상반적인 반응을 보여, 아들에게는 좀더 통제적으로, 딸에게는 좀더 수용적으로 대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여성에게는 다양한 정서의 표현이 허용적인 반면 남성에게는 그렇지 않은 현 우리 사회의 일반적 통념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연구결과(Feldman et al., 1980)에서와 같이,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은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정서조절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의

미하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서 발견된 성차와 관련시켜 볼 때 이해할 만한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본 연구의 추가분석에서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통제적일수록 아동의 불안정/부정적 정서가 높고($r=.15, p<.05$), 정서조절이 낮게($r=-.13, p<.05$)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모두 남아가 여아에 비해 부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경우, 대인적응성 요인에서만 성차가 발견되어,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대인적응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중에서 여아의 대인관계 형성 능력이 남아보다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들(김순정, 2000; 이진숙·한지현, 2004)과 일치한다. 친사회적 행동에서 보이는 이러한 차이는 사회화의 결과에 의한 것으로, 부모가 남아보다 여아의 정서적 경험을 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문화적 경험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남녀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에서는 여아의 경우와 달리, 남아의 경우에만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가 통제적일 때 아동은 높은 인기도/지도력을 보이고,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가 수용적일 때 아동은 높은 대인적응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해 부모가 수용적일 때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난 기존의 연구결과들(신현숙, 2005; 이영순, 1999)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의 태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아버지의 태도는 남아의 인기도/지도력과, 어머니의 태도는 남아의 대인적응성과 밀접한 관련을 보인 본 연구결과는 좀 더 새롭고 조심스러운 해석을 요하

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에서 정서표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받은 아동의 인기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 점(이현민, 1998; 최혜정, 2003; Cohn, 1990)과는 대조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통제적으로 다룰 때 아동의 인기도/지도력이 높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는 부모의 전반적인 양육태도와 자녀의 세부적인 정서표현에 대한 수용태도가 다르다는 측면(최혜정, 2003; Hoffman, 1983)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즉,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수용은 부모의 양육행동 가운데 특히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부모가 반드시 수용적이거나 통제적이어야 한다기보다는 유아가 표현하는 정서의 종류에 따라 수용과 통제를 적절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인기도와 또래수용성을 살펴본 연구에서 부정적 정서를 덜 표현하는 유아들이 또래로부터 더 수용된다는 연구결과(박진재, 2002)와 유사한 맥락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서적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것은 타인에게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기에, 이를 통제할수록 인기도/지도력이 높아질 수도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내용상 특성에 기인할 수도 있는데, 기존의 연구들이 아동의 인기도 자체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인기도와 지도력을 통합하여 하나의 요인에 포함시켰다.

무엇보다도,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밀접한 관계가 여아의 경우에는 발견되지 않은 점은 매우 흥미롭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자녀의 화, 슬픔, 두려움, 호기심, 근심, 행복, 혐오감 등 7가지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와 유아의 대인관계 형성 능력 간의 관계를 남녀 아동 각각에서 살펴본

김순정(2000)에 의하면, 유아의 대인관계 형성 능력은 남아의 경우 7가지 정서표현 모두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여아의 경우 두려움과 화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만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성차는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가 여아보다 남아의 대인관계 형성 능력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남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에서도 여아의 경우 어떠한 유의한 상관도 발견하지 못한 반면, 남아의 경우에만 정서조절을 잘할수록 높은 대인적응성 및 인기도/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조절 능력이 높은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높은 사회적 능력을 보인다는 기존 연구결과들(임연진, 2002; Eisenberg & Mussen, 1989)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여 표현할 때 긍정·친사회적 행동은 높아지고 불안·위축이나 분노·공격성과 같은 부정적 행동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신현숙, 2005)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를 통해 아동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곧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서조절 능력과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에서 발견된 성차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남녀 아동 모두에게서 정서조절 능력과 인기도, 소속감, 리더십 및 친구관계 간의 유의한 관계를 발견한 강지훈(2004)과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유아를 대상으로 정서지능과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김규수·박승순·권소영(2003)에서는 정서지능의 한 하위요인인 자기조절 능력이 남아의 경우에만 친사회적 행동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남아의

경우에만 정서조절 능력이 사회적 능력과 관련 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끝으로,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남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남아의 경우에만 대인적응성에 있어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만이, 인기도/지도력에 있어서는 아동의 정서조절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가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앞서 살펴본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아동 자신의 정서조절 능력이라는 양 변인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갖는 개별적 관련성에 더해, 아동의 대인적응성에 있어서는 특히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보다 더, 그리고 아동의 인기도/지도력에 있어서는 양 변인이 유사한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수용적인 태도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결과들(이현민, 1998; 정진아, 2004; 최혜정, 2003; Ainsworth & Bell, 1974)에서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다른 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일반적인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가운데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만이 아동의 또래유능성에 유의한 변인임을 보고한 연구결과(임연진, 2002)와 비교해 볼 때,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성이라는 양방향적 상호작용을 통한 양육행동(Zelman & Shipman, 1996)이라는 그 특성상 일반적인 양육행동과 차별화되는 양육행동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 아동의 정서조절 및 사회적 능력은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부모는 딸보다는 아들의

정서표현에 좀더 통제적이고,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능력은 여아에 비해 다소 낮은 경향이 있다. 또한,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이러한 관계는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특히 남아에게서만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연구 대상이 일부 계층에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소득 수준의 연구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척도는 서구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서구와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점이 고려되지 않았다. 동일한 정서 상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정서 상태에 대한 의미 부여는 각 문화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국외 연구에서 발견된 정서조절 양상은 우리 문화에서 보이는 그것과는 다를 수 있어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상황에 적합한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하위요인들간의 관련성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지 않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또 다른 결과변인에 대한 관심을 일깨운다. 즉,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억압적, 통제적 태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력을 보고하는 국외 연구결과(Fabes, Leonard, Kupanoff, & Martin, 2001)와 같이, 후속 국내연구에서는 사회적 능력의 보다 다양한 하위변인과 더불어 아동의 문제행동에 초점

을 두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본 연구는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다루고 있으며,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자신에 의해 측정되었다. 이는 부모가 지각하는 태도는 실제로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행동과는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는 부모와 다르게 지각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지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먼저,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아버지와 어머니의 태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자녀와의 상호작용 수준에서의 아버지-어머니 간 차이를 고려할 때, 주양육자로서 어머니가 미치는 영향만을 연구한 다른 연구들과 달리 아버지의 역할을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탐색한 결과, 남아의 부정적 정서를 적절하게 수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긍정적 발달에 도움을 주는 보다 적극적인 양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보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부모의 올바른 양육행동을 돕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지훈(2004). 남·여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연희(1995).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연희·이종희(2005).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아동의 정서성 및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6), 201-216.
- 김광웅·이인수(1998).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능력. **아동학회지**, 19(2), 65-75.
- 김규수·박승순·권소영(2003). 유아의 정서지능과 자아개념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8(1), 253-270.
- 김문신(2003).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정(2000).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정서적 부적응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옥희(2003).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우석(2004). 정서표현성, 자기방어기제 및 대처방식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미·도현심(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 박진재(2002). 아동의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사회적 기술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화운·안라리(2006). 유아의 성에 따른 정서인식 수준과 사회적 능력 및 또래 수용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6(1), 276-292.
- 손승희·이은혜(2004). 아동의 또래유능성과 대인간 문제해결능력 및 어머니 양육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2(4), 167-177.
- 신애경(2003). Thinking Science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인지발달 가속과 인지과정 기능의 발달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현숙(2005).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혜숙·왕정희(2001). 초등학교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해결력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63-175.
- 이영순(1999). 어머니 양육태도와 유아의 또래지위 및

- 자아지각과의 관계 분석.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선 · 정옥분(2001).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기 자녀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17-35.
- 이진숙(2001). 유아의 애착표상과 교사 유아관계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진숙 · 한지현(2004). 어머니의 부모효능감과 양육 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22(6), 63-73.
- 이태영(2000). 유아를 위한 사회적 유능감 증진 프로그램의 구성 및 효과 검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민(1998).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태도,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민 · 조복희(1998).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태도,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생활과학논집**, 2(1), 17-28.
- 임미옥(2006). 부모의 정서표현 및 자녀에 대한 정서 표현 수용태도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관계.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연진(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 113-124.
- 임희수 · 박성연(2001).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 조절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37-54.
- 정진아(2004).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 태도와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정(2003).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자녀의 사회적 능력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영민(2005). 부모의 정서표현 및 유아에 대한 정서 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유미 · 손경화(2004).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1), 197-206.
- 허애수(2003).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또래유능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계옥(2001). 어머니의 자기-지각, 양육행동 및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22(2), 181-194.
- 황혜정 · 김경희(1999).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지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3), 139-151.
- Ainsworth, M. D. S., & Bell, S. M. (1974).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K. J. Connolly & Bruner(Eds.), *The growth of competence*, 97-118. London and New York : Academic Press.
- Barrett, K., & Campos, J. (1987). Perspectives on emotional development : A Functionalist approach to emotions. In J. Osofsky(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2nd ed., pp.555-578). New York : Wiley.
- Baruch, G. K., & Barnett, R. C. (1981). Competence-related behavior of preschool girls.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103, 79-103.
- Berlin, L. J., & Cassidy, J. (2003). Mother's self-reported control of their preschool children's emotional expressiveness : A longitudinal study of associations with infant-mother attachment and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2, 477-495.
- Bidell, T. (1988). Vygotsky, Piaget, and the dialectic of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31, 329-348.
- Caspi, A., & Moffitt, T. E. (1993). When do individual differences matter? A paradoxical theory of personality coherence. *Psychological inquiry*, 4, 247-271.
- Cohn, D. A. (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 Development*, 61, 152-162.
- Doh, H., & Falbo, T. (1999). Social competence, maternal attentiveness, and overprotectiveness : Only children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3(1), 149-162.
- Eisenberg, N., & Mussen, P. H. (1989). *The roots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1-153.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abes, R., Leonard, S., Kupanoff, K., & Martin, C. (2001). Parental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 Rela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and social responding. *Child Development*, 72, 907-920.
- Feldman, J. F., Brody, N., & Miller, S. A. (1980). Sex differences in non-elicited neonatal behavior. *Mirrill-Palmer Quarterly*, 26, 63-73.
- Frijda, N. H. (1986). *The emotions*.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ttman, J. M., & Katz, L. F. (1989).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73-381.
- Hart, D., Hoffman, V., Edelstein, W., & Keller, M. (1997). The relation of childhood personality types to adolescent behavior and development : A longitudinal study of Icelandic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3, 195-205.
- Hoffman, M. L. (1983). Affective and cognitive processes in moral internalization. In E. T. Higgins, D. N., Rubles, & W. W. Hartup(Eds.), *Social cognition and social development : A sociocultural perspective*, 236-274.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zard, C. E. (1979). *The maximally discriminative facial movement coding system(MAX)*. Newark, DE : University of Delaware Institutive Resources Center.
- Kennedy, J.(1992). *Analyzing qualitative data-log-linear analysis for behavioral research*. New York : Praeger.
- Kopp, C. B.(1989).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s : A developmental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43-354.
- Kring, A. M., Smith, D. A., & Neale, J. M. (1994). Individual difference in dispositional expressivity scal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66, 934-949.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 Parent-children interaction. In P. H. Musse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4). New York : Wiley.
- Pettit, G. S., Dodge, K. A., & Brown, M. M. (1998). Early family experience, social problem solv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9, 107-120.
- Saarni, C. (1989). Children's beliefs about parental expectations for emotional expressive behavior management. Paper presented an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Baltimore, April.
- Shields, A., & Cicchetti, D. (1997). Emotion regulation in school-age children :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criterion Q-sort sca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6), 906-916.
- Shields, A., & Cicchetti, D. (1998). Reactive aggression among maltreated children : The contribu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 381-395.
- Thomson, R. A. (1993). Socioemotional development : Enduring issues and new challenges. *Developmental Review*, 13, 372-402.
- Vygotsky, L. (1978). *Mind in society*.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Zelman, J., & Shipman, K. (1996). Children's expression of negative affect : Reasons and methods. *Developmental Psychology*, 32(5), 842-849.